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교향악

-성결법전의 신학과 설교-1)

김선종*

1. 들어가는 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책을 고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레위기를 꼽을 것이다. 레위기는 대부분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율법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무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짐승의 각을 뜨는 것이 반복되어 나와, 복음의 은혜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 신앙인들이 레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만이 아니다. 역사비평의 대변자로 불리는 벨하우젠(Wellhausen)은 반셈족주의의 입장에서 레위기를 포로기 이후에 유대주의를 낳은 율법주의의 문서로 평가했다.²⁾

그러나 최근에 레위기는 과거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레위기는 책의 자리(*Sitz im Buch*)에서 오경의 한가운데 위치할 뿐 아니라, 내용의 측면에서도 오경의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는 주장이 그러하다.³⁾ 야웨 하나님

*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부교수.

- 1) 이 글은 2018년 11월 30일 서울 방주교회에서 열린 제109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에서 ‘레위기와 설교’에 대한 주제연구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2)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 Reimer, 1833).
- 3) G. Auld, “Leviticus: After Exodus and Before Numbers,” R. Rendtorff and R. A. Kugler eds.,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SVT 93 (Leiden: Brill, 2003), 41-54; Th. Römer, “De la périphérie au centre : Les livres du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레위기를 포함하는 사내 산 단락(출 19-민 10)의 율법 수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푸신 첫 설교의 주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 사상이었고(눅 4:16-19),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을 때, 그 이웃 사랑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사실에서 더 이상 레위기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현장에서 레위기를 설교할 수 있고, 설교해야 하는가? 먼저 레위기를 설교해야 하는 근거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데 있다(벧전 2:9). 오늘날 목회자는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연속성에 있다.⁴⁾ 또한 레위기를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레위기 자체가 모세를 통한 일종의 하나님의 설교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레위기 안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수많은 설득 기법이 존재한다.⁵⁾

이 글에서는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17-26장에 집중할 것이다.⁶⁾

Lévitique et des Nombres dans le débat actuel sur le Pentateuque,” Th. Römer (ed.),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BETL 215 (Leuven - Paris - Dudley: Peeters, 2008), 14-22.

- 4)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왕대일 『목회자의 실패, 목회자의 성공』(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6-60;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 (2013), 9-42를 보라.
- 5) D. Luciani, *Sainteté et pardon, vol. 1 : Structure littéraire du Lévitique*, BETL 185A (Leuven - Paris - Dudley: Peeters, 2005); James W. Watts, *Ritual and Rhetoric in Leviticus: From Sacrifice to Scriptur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김선중,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 『구약논단』 62 (2016), 192-217.
- 6) 성결법전(Holiness Code; H)은 레위기 17-26장에 있는 법의 모음집을 가리키는 데 쓰는 낱말로, 1877년에 클로스터만(Klostermann)이 “Beitrag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레위기의 전반부가 주로 제사법(1-7장), 제사장 임직식과 제사 거행(8-10장), 정결법(11-15장), 대속죄일(16장) 등 주로 성소 또는 제사와 관련된 종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레위기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백성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의 관점에서 기술한 제사장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신앙의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교회가 자신만을 위한 자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일진대,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보고 일상과 종교의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모드를 제시하는 성결법전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가 선포하는 바른 메시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⁷⁾ 아래에서는 성결법전의 짜임새를 살펴보고, 하나님과 백성과 땅이라는 관점에서 성결법전의 신학을 살펴본 후, 여기에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신학의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성결법전의 짜임새

현대의 양식사와 수사비평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본문의 내용은 본문을

성결법전의 존재 유무, 시기 등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다. H가 P의 후기(後記)로서 P의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견해를 위해서는 K. Elliger, *Leviticus*, HAT 4 (Tübingen: J. C. B. Mohr, 1966)를, H가 처음부터 P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위해서는 A. Ruwe, “*Heiligkeitgesetz*” und “*Priesterschrift*”: *Literaturgeschichtliche und rechtssystematische Untersuchungen zu Leviticus 17,1-26,2*, FAT 26 (Tübingen: Mohr Siebeck, 1999)을 보라.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박철우, “성결법(레위기 17-26장)의 구조 및 신학연구”, 「신학사상」 70 (1990), 589-642; 채홍식, “성결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 (2000), 59-82를 보라.

7) 성결법전이 보여주는 민중이 지니고 있는 관심사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책을 참조할 수 있다.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 Brill, 1996).

이루는 짜임새에서 온다. 곧 짜임새와 내용은 하나이고, 짜임새가 내용(form-content)이다.⁸⁾ 이것은 글쓰기의 일반적인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나 본문의 의도는 본문의 짜임새를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본문을 구성하는 데 저자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성결법전의 짜임새를 살펴보면 이 법전이 독자와 청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성결법전의 짜임새와 흐름은 다음과 같다.⁹⁾

제물 도살법: 거룩한 장소(17장)

성윤리(18장)

십계명(19장)

성윤리(20장)

제사장의 삶(21-22장)

절기법: 거룩한 시간(23장)

복수동태법(24장)

안식년과 희년: 거룩한 시간(25장)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26장)

먼저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을 때에는 그 짐승이 식용이든 제물이든 상관없이 회막 문 들머리에서 잡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식생활과 종교 생활이 제사장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근친상간 등을 금지하는 성윤리를 다루는데, 이 두 장이 십계명을 나열하는 레위기 19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하다.¹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밀한 성관계에서도 거룩

8)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9) 계약법전, 신명기법전과 비교한 성결법전의 거시 구조를 위해서는 김선중, “성결 법전의 계약신학,” *Canon&Culture* 8 (2014), 200-201을 보라.

10) M.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 53 (1999), 341-350.

함을 유지할 것을 명하시는 동시에, 부부를 제외한 가족을 이루는 근친관계에 서는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뜻을 보여준다.¹¹⁾ 잇따르는 레위기 21-22장은 제사장의 상례, 혼례,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의 삶과 제사장의 가족의 범위를 다룬다.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다루는 성결법전에서 제사장의 삶을 다루는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의 삶이 백성들의 관찰과 보호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¹²⁾ 23-25장은 거룩한 시간을 규정하는 23장(절기법)과 25장(안식년과 회년)이 24장을 감싸는 짜임새를 이루고 있다. 24장의 앞부분에는 등불과 진설병에 대한 법을 다루어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거룩한 시간의 주제를 다루고(1-9절),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문제를 다룸으로써(10-23절)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주제를 여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성결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26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3. 성결법전의 이상과 백성의 현실

성결법전의 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레위기 19장 2절 등이 가르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³⁾ 성결법전의 거룩함에 대한 주제는 ‘그러므

11)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범 재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벗은 몸(에르바트)에 관한 10계명’ (레 18: 7-16) -,” 「구약논단」 23 (2007), 120-146; 조미형,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25 (2009), 167-191.

12) 김선종,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 192-217.

13) J. Hänel, *Die Religion der Heiligkeit* (Gütersloh: Der Ruf, 1931)은 하나님의

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참조 19:21)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곧바로 연결된다.¹⁴⁾ 신명기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해 이스라엘 백성을 생득적으로, 곧 낳 때부터 거룩하다고 말한다(신 7:6; 14:2, 21; 26:19 등의 **קִדְּשׁוּ**),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거룩함을 사람이 성취해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구약에서 거룩함이란 추상적이고 상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소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세상 또는 부정함과 구별된다는 관계 개념이다.¹⁵⁾ 따라서 비록 신학(theology)이라는 개념이 그 어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학문이라는 전제 아래, 구약신학을 구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요약하고 고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지라도,¹⁶⁾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조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¹⁷⁾ 20세기 이후 폰 라트(von Rad)의 전승사적 흐름이든, 차일즈(Childs)의 정경적 접근이든 이들은 주로 구약신학을 하나님과

거룩하심을 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로 여긴다.

- 14) D. A. Hagner,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d Books, 1993), 135.
- 15) H. -P. Müller, “**קִדְּשׁ** qdš’ holy,” TLOT 3, 1103-1118; W. Kornfeld, H. Ringgren, “**קִדְּשׁ** qdš,” TDOT XII, 521-545;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38 (2010), 10-32.
- 16) 클라우스 베스터만, 『구약신학 입문』, 박문재 옮김(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9.
- 17) 구약신학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자연 등의 관계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서는 O. Procksch,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Bertelsmann, 1950); Th. C. 프리젠, 『구약신학개요』, 노항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을 보라.

백성의 두 가지 틀로 기술하였다.¹⁸⁾ 그러나 생태계의 보존이 위협당하는 오늘날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관계에서 구약신학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¹⁹⁾ 하나님과 백성과 피조물은 이들 사이에 있는 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곧 신학이 추구하는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 개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백성이 하나님, 이웃, 땅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성결법전의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성결법전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규정한다(레 11:44, 45; 19:2; 21:8).²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세상과 부정함에서 분리되어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19:2; 20:7-8, 26). 이것이 바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막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17장의 제물 도살법을 따르면,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의 통제

18) 게르하르트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1: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의 신학』,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6); 『구약성서신학 2: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승의 신학』, 허혁 역(왜관: 분도출판사, 1996); 브레마드 S. 차일즈,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9) C. J. H.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75; 롤프 크니림, 『구약신학의 과제 1』,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293-412.

20) J. Milgrom,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39-42;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E. Firmage, "Genesis 1 and the Priestly Agenda," *JSOT* 82 (1999), 97-114 등은 성결법전의 범위를 레 17-26의 범위를 넘어 오경의 범위까지 확장시킨다.

아래 회막 어귀에서 잡아야 한다(17:4, 5, 8). 숫염소 귀신(רִיבֹּן)에게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17:7).²¹⁾ 그러한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버려야 한다고 경고한다(17:4, 9, 10, 14; 20:3, 5, 6, 17, 18; 23:29, 30).²²⁾ 사람은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되는데(17:10-16; 19:26), 이는 그 안에 생명과 힘이 담겨 있다고 여겨, 생명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성결 법전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몰렉 제사를 배격하고(18:21; 20:2-5),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19:4; 26:1-2). 또한 점술을 거부하는 등 이방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경고하는데(19:26-31; 20:6, 27), 이것은 이방신에게 자녀를 바침으로써 더 많은 후손을 약속 받고, 주술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당시 민간에 퍼져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다.²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결법 등을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계명으로 규정한다(출 12:19, 48, 49; 레 16:29; 17:15; 18:26; 19:34; 24:16, 22; 민 9:14; 15:29; 15:30; 수 8:33; 켈 47:22).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아담’(אָדָם)으로 이방인도 포함한다(18:5).²⁴⁾

한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특별히 ‘나는 너(회)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회)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계약체결양식(22:33; 25:38; 26:12-13, 44-45)으로 명시된다.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

21) 성결법전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신앙의 요소가 나타난다. 김선중, “성결법전의 민간신앙,” 『구약논단』 41 (2011), 158-180을 보라.

22) 이 표현의 뜻을 위해서는 노세영,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21 (2015), 9-32를 보라.

23) 김선중, 『레위기 성결법전의 신학과 윤리』 (서울: CLC, 2018), 224-234.

24) 레 18:5가 초기 유대주의와 바울 사상에 끼친 영향을 위해서는 P. M. Sprinkle, *Law and Life: The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5 in Early Judaism and in Paul*, WUNT 241 (Tübingen: Mohr Siebeck, 2008)을 보라.

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낸다. 칼뱅(Calvin)은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신 행위라고 표현하고, 몰트만(Moltmann)은 하나님이 타자로서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케노시스라고 주장한다.²⁵⁾ 또한 성결법전의 계약체결양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힌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계약, 언약(ברית)’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레위기 26장에 주로 나와(레 2:13; 24:8; 26:9, 15, 25, 42[x3], 44, 45), 하나님과 맺은 계약 준수의 여부에 따라 백성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⁶⁾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십계명을 담은 레위기 19장과 절기법을 담은 23장에 나오는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두 장은 약자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백성이 말뚝통이를 남겨놓도록 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보장하는데(19:9-10; 23:22),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양식’(לֶחֶם אֱלֹהִים, 21:6, 8, 17, 22; 22:25)이라는 표현이 있는 레위기 21-22장을 감싸고 있다.²⁷⁾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백성은 거짓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19:12), 하나님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24:10-16).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은 성소 안의 등불을 늘 켜 놓아야 하고(24:1-4), 진설병을 진열함으로써(24:5-9),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백성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22:18-25),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25) 존 칼빈, 『칼빈의 십계명 강해』, 김광남 옮김(서울: 비전북, 2011), 45-46; 위르겐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위르겐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26) 김선종, “성결 법전의 계약신학,” 195-222.

27) Sun-Jong Kim, “La nourriture de Dieu dans le Code de Sainteté,” ZAW 123 (2011), 424-430.

홀륭하거나 올바른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21:6, 8).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3.2. 이웃과의 관계

성결법전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명한다. 이웃과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기초 단위를 이루는 가족, 다음으로 가족을 벗어난 이웃과의 관계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구체적인 방편으로 근친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고(18:6-18), 더 나아가 이웃의 아내와의 관계, 동성 사이의 관계, 짐승과의 관계 등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성에 대한 가르침을 확대한다(18:19-23).²⁸⁾ 먼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 이외의 가족끼리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친 사이에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가족 질서가 무너지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고(삼하 16:22),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하기도 했다(삼하 3:7). 압살롬과 아브넬은 이러한 행동으로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복시켜 각각 아버지와 상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오경의 다른 법전과 달리 성결법전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אֱמוּנָה וְאָבִיּוֹן תִּירָאוּ)고

28) 구약 시대의 여러 성 풍속과 그 의미를 위해서는 김선중, “성, 자본, 권력: 성(sexuality)의 메타신학,” 「구약논단」 64 (2017), 116-118을 보라. 동성 사이의 관계를 위한 서로 다른 입장을 위해서는 김진명, “레위기의 동성에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주석적 연구사와 논쟁 문제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9 (2017), 35-59와 이영미, “성서의 퀴어성과 해석의 다양성 - 인간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 (2017), 35-61을 참고하라.

언급함으로써(19:3)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여 가족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보존을 강조하는 성결법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또한 20:9). 레위기 19장 3절은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레 19:13, 32; 25:17, 36, 43)이나 성소(레 19:30; 26:2)가 아닌 사람에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פָּחַד)라는 동사를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²⁹⁾ 근친 사이의 관계를 금지하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목록을 통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은 3-4대로 이루어져, 대략 60-7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³⁰⁾

구약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본문은 레위기 21-22장이다. 레위기 21장은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례와 혼례와 자녀 교육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기록하다고 인정받는 제사장들의 가정생활은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하나의 기준이다. 레위기 22장 17-25절은 제물의 섭취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사장의 가족 구성원을 논한다. 제사장이 돈으로 산 이방인 중 또한 제사장의 가족에 포함되는 것을 보아, 레위기가 제사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구조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열린 공동체였다. 특별히 레위기 22장 13절은 제사장의 딸이 이혼하여 친정집에 돌아온 경우에 제물을 먹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록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곧 이혼한 여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³¹⁾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이러한 가족 개념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하여 적용한다. 성결법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형제’(אָח)라고 부르는데(레 25:14, 25, 35 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야곱의 후손인 점에서

29) J. Milgrom, *Leviticus 17-22*, AB 3A (New He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608-1612; A. Marx, *Lévitique 17-27*, CAT III b (Genève: Labor et Fides, 2011), 82를 보라.

30) 위의 각주 11을 보라.

31) 김선종, “레위기의 가족구조,” 『신학이해』 43 (2012), 7-26.

보면 당연하다. ‘형제’라는 낱말이 레위기에 모두 23번 쓰이는데, 성결법전에 20회 등장하고 그 가운데 레위기 25장의 회년 단락에서만 10회 나타난다(레 7:10; 10:4, 6; 16:2; 18:14, 16[x2]; 19:17; 20:21[x2]; 21:2, 10; 25:14, 25[x2], 35, 36, 39, 46[x2], 47, 48; 26:37). 성결법전이 레위기 1-16장의 제사장 법전보다 백성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회년 법이 가난해진 형제의 구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빈도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성결법전의 수신인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가부장제 아래 있는 남성이라는 점에서 ‘형제’가 사용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여성도 포함하여 백성의 연대감을 나타낸다.³²⁾ 이스라엘 백성은 확대된 가족에 해당하고, 가족끼리의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정신은 네 이웃과 나그네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언명을 통해 명시된다(19:18, 33-34). 무라오카(Muraoka)는 레위기 19장 18후반절을 ‘너는 네 자신과 같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옮김으로써, ‘카모카’(קָמוּקָא)를 부사구가 아닌 형용사구로 이해한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인 노예였던 것처럼 과거 자신들의 형편에 처해 있는 가난한 땅에 있는 이웃과 거류민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³³⁾ 그런데 이러한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주로 경제생활과 사법 생활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십계명을 담고 있는 레위기 19장은 이미 제사장 법전에 있는 화목제 규정을 ‘다시 반복’(Wiederaufnahme)하여(레 7:16-18과 19:5-8), 화목제는 단지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19장 5-8절에 뒤따르는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19:9-10; 23:22)의 빛에서 제주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모두 소비하라는 분배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³⁴⁾ 제사장 법전의 제사법이 성결법전에서

32) 성결법전의 수신인에 대해서는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 Brill, 1996), 29-35.

33) T. Muraoka, “A Syntactic Problem in Lev. XIX 18b,” *JSS* 23 (1978), 291-297.

34) 강은희, “레위 19,5-8: 거룩함의 역설,” 「신학전망」 184 (2014), 2-32.

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화목제물을 다 소비하지 않고 잉여 제물로 남겨 두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성결법전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의 잉여 자산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레 7:16-18(P)

16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지원 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18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레 19:5-8(H)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하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중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계속해서 성결법전은 일용직 또는 장기 계약직 노동자의 품삯을 지불하기를 미루면 안 되고(19:13), 장애인과 어르신을 보살피야 한다고 가르친다(19:14, 32). 경제 정의의 차원에서 도둑질과 사기를 엄격하게 금지한다(19:11). 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에, 땅을 가지고 부를 축척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גֵּרִים וְתוֹשְׁבֵי אֶרֶץ)로서, 땅은 생존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25:23; 참조, 대상 29:15). 땅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레위기의 사상은 사람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나, 노동 없이 주어진 토지는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헨리 조지(H. George, 1839-1897)의 지공주의(地公主義, Georgism)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³⁵⁾

이웃 사랑의 정신은 회년(레 25:8-55) 규정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형제로 표현되는 동포가 가난에 빠지게 되면(25:25, 35, 39, 47) 그를 종으로 삼지 말고 품꾼(פֶּהָרִים)이나 동거인(תּוֹשָׁבִים)처럼 대해야 한다(25:39-40).³⁶⁾ 다

35) 토지공개념의 뿌리가 되는 지공주의를 위해서는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김윤상 역 (서울: 비봉출판사, 1997)을 보라. 이 정보는 김종훈 목사님(오산침례교회)에게 얻었다.

36) 눅 15:11-32의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타난 이른바 땅자의 사회적 신분은 레 25의

시 말해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계약법전이나 신명기법전과 달리 히브리 종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출 21:2의 ‘히브리 종’과 신 15:12의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또한 희년이 속죄일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백성 사이의 연대와 평등이 깨져 일어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바로 사람의 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레위기는 재판의 경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정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 사회의 약자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19:15, 35-36). 성결법전은 사회의 약자를 단지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여긴다.³⁷⁾

3.3. 땅과의 관계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백성이 땅으로 대변되는 짐승과 식물 등 다른 피조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영위하며 살도록 요구하신다. 이것은 제사장 법전(P)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제사장 법전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의 거대한 식구로 여겨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점과 같다(창 1:2-4전).

레위기 17장의 제물 도살법에 따르면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성소의 회막 들머리에서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살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7:4). 식용이든 제물이든 짐승을 잡을 때에는 짐승의 생명 또한 고려해야 한다. 어미 짐승과 새끼 짐승을 동시에 잡는 것을 금지하

희년법과 그리스의 파라모네(paramone) 제도의 관점에서 종 또는 품꾼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을 위해서는 Sun-Jong Kim, “Lecture de la parabole du fils retrouvé à la lumière du Jubilé,” *NT* 53 (2011), 211-221을 보라.

37) 그밖에 법전과 지혜문학에 나타난 구약의 나눔의 사상을 위해서는 채홍식, “구약성서의 나눔에 대한 이해: 법전과 지혜문학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14 (2008), 120-147을 보라.

는 것도 생명에 대한 짐승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2:27-28). 그야말로 ‘짐승에게도 따뜻한 울림’이다.³⁸⁾ 그런데 짐승은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려 살해된다. 이에 대해 르네 지라르(R. Girard)는 희생제외가 사람을 위해 짐승이 당하는 ‘정결하게 하는 폭력’(violence purificatrice)의 양면성(ambivalence)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타당하게 주장하며, 짐승 제사가 가지고 있는 심층 문제를 제기한다.³⁹⁾ 이러한 점에서 알프레드 맑스(A. Marx)는 짐승에 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곡식 제사야말로 메시아 시대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제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⁰⁾

성결법전은 짐승뿐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다른 씨앗을 섞어 뿌리지 않는 것과(19:19)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는 문제(19:23-25)가 그러하다. 레위기는 창세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창조 신학에 따라, 나누고 분리하는 것(לָבַד)을 기본적인 창조 행위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나누고 분리하는 것에 반대되는 섞고 혼합하는 일은 ‘가중한 일’(תוּעֵבָה)이자 ‘문란’(לְבָבִי)한 것으로 여긴다. 히브리 낱말 ‘토에바’(תוּעֵבָה, 18:22, 26, 27, 29, 30; 20:13)와 ‘테벨’(לְבָבִי, 18:23; 20:12)은 레위기에서 18장과 20장의 성윤리 부분에서만 나와, 사람의 성 문제가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벨’은 ‘문란’(개정, 새번역), ‘추잡’(공동개정), ‘가중’(개정), ‘망측’(새번역) 등으로 번역되는데, 분리에 반대되는 ‘혼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짐승과 식물에 대한 규정은

38)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해설에 조지프 T. 리나드, 로니 J. 린스 엮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교부들의 성경 주해, 구약성경 III, 강선남 옮김 (외판: 분도출판사, 2015). 315에서 소제목을 붙인 것임.

39)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8), 62-63은 ‘순화적 폭력’이라고 옮긴다.王大일,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Canon&Culture* 3 (2009) 78-90도 보라.

40) A. Marx, *Les offrandes végétales dans l'Ancien Testament: Du tribut d' dommage au repas eschatologique*, VTS 57 (Leiden: Brill, 1994). 제사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곡식 제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41) 문자적인 해석으로부터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을 위해서는 J.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주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레위기의 사내 산 단락(레 25-26)에서 안식년 본문과 순종에 따른 복, 또한 불순종에 따른 벌의 단락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오는 들짐승은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따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한다. 안식년에는 짐짐승과 들짐승 모두 사람과 함께 안식년의 수혜를 누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몰아내시지만,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내셔서 자식과 짐짐승을 잡아먹게 하신다(25:5-6; 26:6. 22).⁴²⁾

사람이 식물, 짐승, 땅을 비롯한 하나님의 피조물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억제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삶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유지해야 하는 가족의 질서로서의 혼잡함으로 깨뜨릴 경우, 그러한 성범죄가 땅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땅이 백성을 내쫓게 된다(18:24-30; 20:22-24).⁴³⁾

하나님과 백성과 피조물의 이상적인 조화는 안식년 규정(25:1-7)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레위기의 안식년 규정은 주체로서의 땅을 위한 안식으로서 단지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간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땅을 위한 안식은 곧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다(레 25:2, 4).⁴⁴⁾ 땅이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26:34-35, 43). 이것은 이미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왔던 백성과

Milgrom, *Leviticus 17-22*, 1656-1665를 보라. 장세훈, “레위기 19장 19절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논쟁,” *Canon&Culture* 4 (2008), 71-98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조류 독감, 광우병, 구제역, 메르스 등의 현상을 레 25-26에 세 번 나오는 들짐승에 비추어 해석한 김선중, “성결법전의 들짐승,” 「신학이해」 48 (2015), 95-119을 보라.

43) 김선중, “성결법전의 땅,” *Canon&Culture* 5 (2011), 145-171.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 「구약논단」 51(2014), 96-121도 참조하라.

44) Sun-Jong Kim, *Se reposer pour la terre, se reposer pour Dieu*, BZAW 430 (Bosto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2).

땅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년 병행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사람과 남은 것을 들짐승에게 주라고 하는 수혜자의 우선순위를 논한다면(출 23:10-11), 레위기의 안식년 규정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과 짐승 사이의 사회적이고 존재론적인 벽을 허문다.⁴⁵⁾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의 안식년 규정은 하나님과 백성과 땅이 함께 소리 내어 올리는 우주적 교향악이요, 제사장 법전의 창조 신학을 역사에 옮긴 성육신이다.

	출 23:11	레 25:6-7	
	중심	중심	주변
사람	가난한 사람들	너(이스라엘 백성)	네 남종, 네 여종, 네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너희	
짐승	들짐승	집짐승	들짐승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를 다루는 레위기 26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불순종에 대한 명시적인 법은 안식년 법(26:34-35, 43)으로서, 성결법전은 안식년 규정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에서 땅의 안식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이상적인 조화, 백성이 하나님과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삶의 양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척도임을 말한다. 성결법전 곳곳에서 사람과 짐승과 땅의 생명을 강조하는 점에서 안식년 규정이 나타내는 우주적 교향악이라는 은유는 성결법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다.

45) Sun-Jong Kim,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6-7),” *ZAW* 122 (2010), 33-43; “The Group Identity of the Human Beneficiaries in the Sabbatical Year (Lev 25:6),” *VT* 61 (2011), 71-81. 아래 표는 Sun-Jong Kim, “Les enjeux théologiques,” 36에서 따옴.

4. 나가는 말

레위기 전반부(1-16장)가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삶을 강조한다면, 레위기의 성결법전(17-26장)은 이러한 예배의 삶을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곧 성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 확장된 성소라는 이념을 제시한다.⁴⁶⁾ 확장된 성소라는 땅에서 거룩한 삶, 곧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결법전의 이념은 주전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의와 공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제사장 그룹 내의 자기반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결법전을 저술한 제사장은 성소의 기득권만을 위해 전념을 다해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사 28:7; 렘 2:8; 5:31; 6:13; 8:10; 겔 22:26 등), 성소 밖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 애쓴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⁴⁷⁾

성결법전은 영, 개인,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는다. 영과 육, 개인과 공동체, 이스라엘과 열방,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한다.⁴⁸⁾ 이러한 성결법전은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신학적 목회와 신학적 설교의 장을 사람과 교회의 차원을 넘어 모든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단지 세상이 아니라, 우주를 교회의 교구로 삼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는 바울의 사상(롬 8)은 이미 성결법

46)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176-178. 또한 크니립은 역사를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고 야웨 현현의 가장 중요한 양식들 중 하나로서 자연의 영역을 지적한다. R. Knierim, "Offenbarung im Alten Testament," H. W. Wolff eds., *Probleme biblische Theologie*, Festschrift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1971), 228 이하를 보라.

47)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 P와 H의 저자로서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J. Milgrom, *Leviticus 1-16*, 13-57을 보라.

48) 이러한 차원에서 위르겐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88-323은 몸과 땅의 신체성(Leiblichkeit)에 주목한다.

전 안에 내재되어 있다.

레위기는 소수의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교 제의에 대한 지루하고 어려운 교본이 아니다. 레위기 성결법전을 탐독하면,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뒤 임직을 받은 제사장(레 8:35⁴⁹)들이 성소 울타리를 벗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관찰한 모험담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결법전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성과 식물과 짐승, 땅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들의 제사장적 상상력은 성소 밖,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 세계까지 이르러 이들이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교향악을 작곡하고 연주한다. ‘심포니아’(συμφωνία)가 뜻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내는 소리의 조화를 이룬다.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이다.

성결법전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지 세상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만한 거룩함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존재양식에 합당하게 사회의 약자와 사람 이외의 미물도 귀하게 여기는 낮고 겸손한 거룩함이다. 어느 시인의 말을 빌면, 성결법전은 단지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삶을 가르친다.⁵⁰⁾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탈종교의 시대, 개인과 가정과 개교회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척박한 이 시대에,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부터 땅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눈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선사한다.

49)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개역개정』)

50) 기형도, “우리 동네 목사님,” 『입 속의 검은 잎』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129-130.

<주제어>

레위기, 성결법전, 거룩한 삶, 확장된 성소, 우주적 교향곡

<Key words>

Leviticus, Holiness Code, Holy life, Extended sanctuary, Universal symphony

* 접수일 2018년 12월 31일, 수정일 2019년 9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24일

참고문헌

- 게르하르트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1: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의 신학』,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_____, 『구약성서신학 2: 이스라엘의 예언적 전승의 신학』,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강은희, “레위 19,5-8: 기록함의 역설,” 「신학전망」 184 (2014), 2-32.
- 김선중, “성결법전의 땅,” *Canon&Culture* 5 (2011), 145-171.
- _____, “성결법전의 민간신앙,” 「구약논단」 41 (2011), 158-180.
- _____, “레위기의 가족구조,” 「신학이해」 43 (2012), 7-26.
- _____, “성결 법전의 계약신학,” *Canon&Culture* 8 (2014), 195-222.
- _____, “성결법전의 들짐승,” 「신학이해」 48 (2015), 95-119.
- _____,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 「구약논단」 62 (2016), 192-217.
- _____, “성, 자본, 권력: 성(sexuality)의 메타신학,” 「구약논단」 64 (2017), 101-127.
- _____, 『성결법전의 신학과 윤리』, 서울: CLC, 2018,
- 김진명,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 「구약논단」 51 (2014), 96-121.
- _____, “레위기의 동성에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주석적 연구사와 논쟁 문제들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9 (2017), 35-59.
-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기록,” 「구약논단」 38 (2010), 10-32.
- _____, “꿂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 ” 「구약논단」 21 (2015), 9-32.
- 롤프 크니림, 『구약신학의 과제 1』,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옮김, 서울: 민음사, 2008.
- 박철우, “성결법(레위기 17-26장)의 구조 및 신학연구,” 「신학사상」 70 (1990), 589-642.
- 브레바드 S. 차일즈,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왕대일, 『목회자의 실패, 목회자의 성공』,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 11 (2001), 27-48.
- _____,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Canon&Culture* 3 (2009) 67-96.
- 위르겐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7.
- _____,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 (2013), 9-42.
- _____, “성서의 쿼어성과 해석의 다양성 - 인간창조(창 1:27; 2:7, 24)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71 (2017), 35-61.
-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금지조항들,” 「구약논단」 19 (2005), 53-72.
- 장세훈, “레위기 19장 19절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논쟁,” *Canon&Culture* 4 (2008), 71-98.
-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 ‘벗은 몸(에르바트)에 관한 10계명’(레 18: 7-16) -,” 「구약논단」 23 (2007), 120-146.
- _____, “레 18장과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성 금령 비교 연구: 혈족과 인척 안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금령,” 「구약논단」 25 (2009), 167-191
- 조지프 T. 라나드, 로니 J. 롬스 엮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교부들의 성경 주해, 구약성경 III, 강선남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존 칼빈, 『칼빈의 십계명 강해』, 김광남 옮김, 서울: 비전북, 2011.
- 채홍식, “성결 법전(레 17-26)의 형성에 관한 고찰 - 레 19:3-18절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8 (2000), 59-82.
- _____, “구약성서의 나눔에 대한 이해: 법전과 지혜문학을 중심으로,” 「영산신학 저널」 14 (2008), 120-147.
- 클라우스 베스터만, 『구약신학 입문』,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프리젠, Th. C., 『구약신학개요』, 노항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김윤상 역, 서울: 비봉출판사, 1997.
- Auld, G., “Leviticus: After Exodus and Before Numbers,” R. Rendtorff and

- R. A. Kugler eds., *The Book of Leviticus: Composition and Reception*, SVT 93, Leiden: Brill, 2003, 41-54.
- Douglas, M.,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 53 (1999), 341-350.
- Elliger, K., *Leviticus*, HAT 4, Tübingen: J. C. B. Mohr, 1966.
- Firmage, E., "Genesis 1 and the Priestly Agenda," *JSOT* 82 (1999), 97-114.
- Hagner, D. A., *Matthew 1-13*, WBC 33A, Dallas: Word Books, 1993.
- Hänel, J., *Die Religion der Heiligkeit*, Gütersloh: Der Rufer, 1931.
- Joosten, J.,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SVT 67, Leiden: Brill, 1996.
- Kim, Sun-Jong, "Les enjeux théologiques des bénéficiaires de l'année sabbatique (Lev 25,6-7)," *ZAW* 122 (2010), 33-43.
- _____, "La nourriture de Dieu dans le Code de Sainteté," *ZAW* 123 (2011), 424-430.
- _____, "Lecture de la parabole du fils retrouvé à la lumière du Jubilé," *NT* 53 (2011), 211-221.
- _____, "The Group Identity of the Human Beneficiaries in the Sabbatical Year (Lev 25:6)," *VT* 61 (2011), 71-81
- _____, *Se reposer pour la terre, se reposer pour Dieu*, BZAW 430, Bosto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2.
- Klostermann, A., "Beitrag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ZLThK* 38 (1877), 401-445.
- Knierim, R., "Offenbarung im Alten Testament," H. W. Wolff eds., *Probleme biblische Theologie*, Festschrift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1971, 206-235.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Kornfeld, W., Ringgren, H., "קדש qdš," *TDOT* XII, 521-545.
- Luciani, D., *Sainteté et pardon, vol. 1 : Structure littéraire du Lévitique*, BETL

- 185A, Leuven-Paris-Dudley: Peeters, 2005.
- Marx, A., *Les offrandes végétales dans l'Ancien Testament: Du tribut d'ommage au repas eschatologique*, VTS 57, Leiden: Brill, 1994.
- _____, *Lévitique 17-27*, CAT III b, Genève: Labor et Fides, 2011.
- Milgrom, J.,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 _____, *Leviticus 17-22*, AB 3A, New He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Müller, H. -P., “קדש *qdš* holy,” TLOT 3, 1103-1118.
- Muraoka, T., “A Syntactic Problem in Lev. XIX 18b,” *JSS* 23 (1978), 291-297.
- Procksch, O.,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Bertelsmann, 1950.
- Römer, Th., “De la périphérie au centre : Les livres du Lévitique et des Nombres dans le débat actuel sur le Pentateuque,” Th. Römer ed., *The Books of Leviticus and Numbers*, BETL 215, Leuven - Paris - Dudley: Peeters, 2008, 14-22.
- Ruwe, A., “*Heiligkeitsgesetz*” und “*Priesterschrift*”: *Literaturgeschichtliche und rechtssystematische Untersuchungen zu Leviticus 17,1-26,2*, FAT 26, Tübingen: Mohr Siebeck, 1999.
- Sprinkle, P. M., *Law and Life: The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5 in Early Judaism and in Paul*, WUNT 241,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Trible, P.,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Watts, J. W., *Ritual and Rhetoric in Leviticus: From Sacrifice to Scriptur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 Reimer, 1833.
- Wright, C. J. H.,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0.

<초록>

하나님과 사람의 땅의 교향악

-성결법전의 신학과 설교-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부교수)

성결법전은 레위기 17-26장의 법의 모음집을 가리킨다. 레위기의 전반부인 1-16장이 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결법전은 성소 밖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성결법전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사람이 성취해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가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삼자 사이의 관계에서 성결법전의 신학을 기술한다.

먼저 성결법전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는 계약체결양식에서 명시화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방의 미신 혹은 종교적 사회문화와 구별된 삶이다. 그러나 성결법전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란 차원을 넘어선다. 즉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류민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웃과의 관계는 가족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이스라엘이 다 형제라는 연대의식으로 확대된다. 교육, 정치 경제, 사법, 노동, 문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서 이 모두는 단순히 사회참여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범주는 땅에까지 확장된다. 땅 혹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있는 것으로 여길 때 인간의 삶은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자연에 대한 착취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룩하게 살려는 백성은 생명에 대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억제와 타자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

성결법전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지 세상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태도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회의 약자와 사람 이외의 미물도 귀하게 여기는 낮고 겸손한 거룩함이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폐쇄된 제의적 설명서가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개방된 삶의 지침서이다. 성결법전은 성소라는 밀실에 갇혀 성막의 밖과는 소통이 없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을 가슴에 담고 성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람과 짐승,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제사장과 평신도가 함께 어울려 사는 변화무쌍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살이에 눈을 던진다.

<Abstract>

God,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ssociate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 Holiness Code is a collection of laws in Leviticus 17-26. Whereas Leviticus 1-16, the first half of the book pays attention to the religious life centered mainly on the sanctuary, the Holiness Code teaches us about the holy life outside the sanctuary. The holiness according to the Holiness Code is a dynamic concept to be achieved by a person and a value that must be implemented in various relationships. In this sense, the theology of the Holiness Code is to be described in the relationship among God, people, and the lan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people in the Holiness Code is clarified by the covenant formula, "I will be God to you and you will be people to me." It is understood that God promises to limit his own freedom. Therefore, the people must live in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The life as a people of God is distinguished from the pagan superstition and social culture. However, the Holiness Code goes beyond the God of Israel. In other words, the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is the God of the strangers. Therefore, the holy life living in a relationship with God should be expressed as loving neighbors.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s extends from family to solidarity with all Israelites as brothers. The holy life is to realize the will of God in the realm of education, politics,

economy, justice, labor, and culture. All this, however, should be achieved by the power of holiness before God, not merely by the moral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justice. Finally, the holy life extends to the land. Human life becomes more careful when the land and the creatures are considered to be in God's breath. The exploitation of nature would destruct the work of God. Therefore, the people who want to coexist peacefully with all the creatures, including animals and plants, should have a humble and warm heart for life. This means restraint of human greed and respect for the other beings.

The holiness in the Holiness Code is not just a disconnected and separate attitude from the world. It is a modest and humble holiness that has regard for the social weak and the small creature other than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the holy nature of God. In this regard, Leviticus is not a closed guidebook for a cult, but an open guide to the welfare of all. The Holiness Code does not portray a priest as one who is confined to a secret room called the sanctuary and so has no communication outside the tabernacle. He holds the light of God's holy presence in his heart and casts his eyes on the ever-changing, complex and diverse world in which human beings and animals, the Israelites and the aliens, the priests and the lays live altogether.